

연합한 자 (로마서 6:1-11)

신앙 생활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기에 연합하는 자의 축복을 받으라. 오늘도 새로운 것 하는 것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거기에 각자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무엇을 만들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평생 필요하고 항상 필요하다. 이 답으로 사는 자는 저주와 재앙을 뛰어 넘는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이 설명하신 책이다. 이 답은 인간이 저주에 잡히고 난 이후에 답이다. 이 이후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 이 답이 근본 답이고 완전 답이다. 발견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 믿음, 기도도 달라진다. 이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말씀 받으면 이 시간표 온다. 이것이 언약이 되면 근본 기도제목이 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씩 정복하게 된다. 나와 있는 답을 확인하는 것이 각인이다. 기도 제목도 이 답에 눈이 열리는 것 하나 뿐이다. 그러면 응답이 지속이 된다. 내 인생이 저주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도 저주에서 건지게 된다. 성경은 이 답을 발견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정복했다. 자신과 시대를 정복하고 초월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초월한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 다른 것에 아무 영향을 입지 않았다. 이것이 정복이고 초월이다. 그는 사단이 원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답은 여자의 후손뿐임을 알았고, 이것을 위해 가나안 가는 것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임금, 후대 알고 있었다. 오늘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미 답 나와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1. 연합한 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 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동시에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비슷한 표현이 4절에 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된다는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생각하면 된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였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어졌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연합의 결과로 나온 것이 7절이다.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거기서 의가 나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므로 11절처럼 하라고 말씀하신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은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 뜻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믿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이다. 참 쉽다. 진짜로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안 죽어도 된다. 이제, 왜 안죽어도 되는가?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동으로 부활을 약속받

는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써 놓았다. 이렇게 연합된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였다. 살아 있는 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은 다 끝났다. 이미 다 믿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 있다. 구원 받은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탁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도구라면 주인의 의도와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증인도 되고 축복도 받는다. 하나님의 부탁, 한가지이다. 복음을 전하라. 위하여 제자를 찾고 치유를 행하라. 대를 이어 해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목표는 동네가 아니고 땅 끝이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외에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고 부탁이기도 한데, 이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 시간표가 오기를 바란다. 이 때가 되면 이제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 내 안에 들어와서 언약이 된다. 의인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한다. 이것이 연합한 자이다.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해진 자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 사람은 세상 정복한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는 가치있는게 세상에 없다. 시대적 인생을 산 사람은 전부다 전도자였다. 성경에 시대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시대를 정말 정복했고 초월했고, 인생의 저주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도, 노력이나 힘쓰거나 헌신이나 봉사,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응답 받는다.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통하면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전도는 헌신이 아니라 응답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정복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이 마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은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에서 하나가 되면 인생 정복한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인생 답 간단하다.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전도이다. 발견되고 눈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기도

WRC 참석을 잘 했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다. 바깥으로 큰 일은 아니고, 등록은 해 놓고, 출발하기 전까지 기도를 안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아니 기도도 안하고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남는거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일주일 놔두고 급하게 기도를 했다. 아침에 주로 운동하러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잔디밭에서 무릎꿇고 기도했다. 말씀 주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리더수련회와 WRC 본 대회를 통해서 단어 하나로 정리해주셨다. 그것이 기도이다.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래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유달리 더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 온 단어가

너도 기도해야겠다. 이미 언약은 완성되어 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응답이 되어져야 일이 일어난다는 거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가 할 일은 기도지, 이것이 결론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또 한걸음 더 24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날, 우리 교회에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다. 그래서 한두번 2부 메시지에서 말씀한 것 같은데, 첫째는 성경적 전도캠프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는 파급되지 않고 대를 이어 내려가든지 하는 그런 전도가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 들어온 생각은 기도와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이 응답을 받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깊이 기도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것을 계속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 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함께 그 증거를 봐야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는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다. 그러면 뭘 전달해야 하는가? 당연히 근본 복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는 못한다. 근본 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흡하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 미국에 문이 열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미의 문이 끝까지 열렸다면 뭘 해야 하는가? 당연히 복음이고 성경적 전도 전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니깐.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수 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그대로 했다. 사도바울이 뭐했냐면 복음과 전도를 했다. 그의 복음의 내용이 깊이가 대단했다. 깊은 기도와 함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나의 전도라고 설명하셨다. 이걸 전달해야 한다. 시스템이 확실히 서있는 전도를 전달해야 하고 여기에 눈 열린제자를 찾아서 훈련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운동이 아니면 절대 대를 이어서 이 복음 운동 내려가지 않는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것도 중요하다. 안하는 사람도 많으니깐.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이다.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전달해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받아야 할 말씀들이 강단에서 나오고 있다.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다. 전부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다 되어졌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기도이다.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기도하고 와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간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약속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남은 것은 기도이다. 그말이다. 잘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깊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일단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 이후에 잘하는 기도,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언약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냥 하는 기도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마음에 결심이 서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답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기도를 가지고 전쟁을 불지 않겠는가? 당연히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다. 그 기도를 누리는 권세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도는 응답된

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축복이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들어오자마자 정복한다. 승리할수 있다. 당연히 자꾸 기도하게 되어 있다. 빨리 응답이 안될 때도 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답이 있다면 계속 기도할 것이다. 당연히 흑암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잘하는 기도는 다음이다. 기도하면 된다는 답이 있기 바란다. 끝났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언약이 완성되었다. 기도하면 된다는, 응답하겠다는 것이 와 있다.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발견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불안하다. 문제가 있으면. 나도 그랬다. 집중 안된다. 기도가 공중에 떠서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잘하는 기도를 하나? 불안한데? 그래서 얕은 기도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가 뭐에 대한 언약인가?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은 언약이다. 단순히 믿으면 천국가는 정도의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으로 흑암 세력 무너지고 반드시 뱀의 머리가 박살나고 영적 문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흑암세력 무너지면 끝이다. 이유가 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이다. 우리가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알게 되면 다 얻은 것이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남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세력 무너질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면 진짜 남은 것은 시간표 뿐이다.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도 좋다. 개인이 받은 말씀, 그거 누려도 좋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 언약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 언약을 받는가? 기도하면 주신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날이오는 것이다. 오면 진짜 답났다. 답을 가진 것이다. 완성된 언약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답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근본 언약이다. 창세기 3장 회생제사이다. 이것은 3장 15절을 누리는 방법이다. 어떻게 누리는가? 회생제사를 하나님의 언약인줄 알고 회생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인생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역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단을 계속 쌓았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인생에 나타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나타난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 못 얻었으면 저주인데, 100세에 얻었다. 저주가 무너졌다. 뱀의 머리가 깨진 것이다.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였다. 정복했다. 회생제사만 드렸다. 단을 계속 쌓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경제도 주고 힘도 주고, 왕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비밀인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을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이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답을 가졌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계속 해야 한다. 문제 일어난다면 다른데 신경안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 창 3:15를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면 된다는 답을 가졌다. 그 사람들이 모세같은 사람들도고 여호수아 갈렙같은 사람들도고 성경의 중요한 렘넌트들이다. 다니엘, 조서에 의인이 찍혀도 상관없다. 기도하면 된다고 무시했다. 축복있기 바란다. 발견이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 눈이 열려야 한다. 내것이 되어져야 한다.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자리 잡는 언약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매일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시간 정해서 매일 계속 하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미 연합한자이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죽으면 천국 바로 간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가 문제이다. 그 답이 기도이다.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